

## 수사와 수관형사의 형태론

### 구 분 관

전통 문법에서 수사는 9품사의 하나이며 수관형사는 수사와 구별되는 부류를 이루는 것으로 언급되어 왔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거의 없었다. 본고의 특징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관형사의 범위를 ‘수량을 표시하는 어휘들 중에서 체언을 수식하되 격조사와 결합할 수 없는 어휘들’로 한정하였다. 둘째, 15세기 국어에서 기수사를 만드는 접미사는 ‘-차히, -자히, -채, -재, -차, -자’ 등이었는데, 이들 접미사는 현대국어로 오면서 ‘-재’를 거쳐 ‘-째’로 통일되었다. 서수사 형성 접미사가 ‘-째’로 통일된 것에는 ‘층’ 종성의 소실과 사이시옷의 개재가 관련되었다고 보았다. 셋째, 서수사를 만드는 접미사는 기수사를 여기로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수관형사를 여기로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예도 있었는데, 이는 기원적으로 이 접미사류가 (의존) 명사에서 왔기 때문으로 보았다. 넷째, 중세국어에서는 나타나지 않던 부정서수사(不定序數詞)가 현대국어에서 나타나는 것은 선행 어기의 단일어화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았다.

핵심어휘: 수사, 수관형사, 기수사, 서수사, 부정수사(不定數詞)

### 1. 서론

수사는 최현배(1937/1975) 이래로 국어의 9품사의 하나로 분류되어 왔지만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많지 않았다.<sup>1)</sup> 또한 수사와 관련되는

---

1) 국어 문법에서 수사를 독립된 품사의 하나로 세운 것은 최현배(1937/1975)가 처음이 아닌가 한다. 이전의 문법서인 유길준(1908), 김규식(1908), 주시경(1910, 1914), 김두봉(1916) 등에서는 수사를 따로 세우지 않고 주로 명사에 포함시키고 있다. 최현배(1937/1975)에서 수사를 품사의 하나로 독립시킨 것은 山田孝雄(1908, 1926)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山田孝雄(1926:135-136)에서는 일본어의 품사에 대해 논의하면서 명사와 구별되는 품사의 하나로 수사를 세우고 있다.

범주로 언급된 수관형사에 대한 논의도 별로 이루어진 바가 없었다. 본고는 수사와 수관형사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수사나 수관형사와 관련하여 우리가 논의할 문제는 다음 몇 가지이다. 첫째, 수사와 수관형사의 분류와 관련한 문제이다. 수사와 수관형사의 분류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다른 의견이 제시되어 왔으므로 이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둘째, 수사와 수관형사는 단어 형성과 관련해서도 제대로 해명되지 않는 문제가 남아 있다. 본고에서는 수사의 합성, 서수사의 파생 등의 조어법적인 문제를 검토해 볼 것이다. 셋째, 수사의 통사적인 특성에 관한 문제이다. 수사의 통사적인 특성의 문제는 품사 분류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본고에서는 수사의 통사적인 특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하지 않고 주로 품사 분류의 문제와 단어 형성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게 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가 진행된다. 2장의 논의를 통하여 수사 및 수관형사의 범위를 정하고 나서 3장과 4장에서는 공시 및 통사적인 논의를 통해 이들의 조어 방식 등 형태론적인 특성을 논의한다. 3장에서는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15세기 국어의 수사 및 수관형사의 형태론적인 특성을 논의하고, 4장에서는 15세기 국어 이후 현대국어에 이르기까지의 수사 및 수관형사의 형태적인 변화를 검토할 것이다.

본고의 논의 대상은 주로 15세기 국어에서 현대국어에 이르기까지의 고유어계 수사 및 수관형사가 될 것이다.<sup>2)</sup> 따라서 한자어계 수사 및 수관형사는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언급하지 않는다. 수사 및 수관형사의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서는 형태적인 특성 이외에도 통사적인 특성이나 의미적인 특성 등이 언급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가

---

그러나 최근의 일본어 문법 논의에서는 수사를 독립된 품사의 하나로 세우는 일은 많지 않으며 일본어 학교 문법에서도 수사는 명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다루고 있다. 영어를 비롯한 인구어(印歐語) 문법에서도 수사 내지 수량사를 독립된 품사의 하나로 세우는 일은 많지 않다.

- 2) 15세기 이전의 수사 및 수관형사에 대해서는 자료가 많지 않아 본격적인 연구가 어렵다. 그러나 ‘흐르, 이틀, 사흘, 나흘’과 같은 일수(日數)를 나타내는 단어, 대체로 보수적인 것으로 알려진 자석(字釋)에 나타나는 형태, 합성 수사나 수관형사에 나타나는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몇 가지 점에 대해서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하지 않는다.

아니면 언급하지 않는다.

## 2. 수사 및 수관형사의 구별

지금까지의 국어 문법 논의에서는 수사와 수관형사의 구별과 관련하여서는 몇 가지의 입장이 있어 왔다.<sup>3)</sup> 한 가지 입장은 수사만 인정하고 수관형사는 수사에 포함시켜 다루는 것이다.<sup>4)</sup> 다른 한 가지 입장은 수사와 수관형사를 모두 인정하는 것이다. 수사와 수관형사를 모두 인정하는 입장은 품사 분류의 기준인 ‘형태 변화’의 기준과 ‘통사론적인 기능’의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에 따라 수관형사의 범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수사 내지 수관형사의 범주에 관한 혼란은 다른 언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sup>5)</sup> 본고에서는 일단 수사와 수관형사를 모두 인

3) 수사와 수관형사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수사 및 수관형사가 무엇인지 먼저 검토해 보아야 하지만 본고는 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논의하지 않는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 문법에서 수사를 독립된 품사의 하나로 세운 것은 최현배(1937/1975)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수사는 품사 분류의 주요 기준인 ‘형태 변화’나 ‘통사론적인 기능’의 관점에서 보면 명사(혹은 체언)와 구별되는 품사로 세우기 어려울 듯하다. 최현배(1937/1975)나 학교 문법에서 수사를 독립된 품사의 하나로 세운 것은 품사 분류의 또 하나의 기준인 ‘의미’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의미는 품사 분류의 주요 기준으로 삼기 어려우므로 수사를 독립된 품사의 하나로 분류하기보다는 명사(혹은 체언)의 하위 부류의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본고의 입장에서 보면 수사는 명사(혹은 체언)의 하위 부류이고, 수관형사는 관형사의 하위 부류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는 ‘수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수사를 독립된 품사로 인정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4) 이런 관점의 논의는 대표적으로 허웅(1975, 1995)을 들 수 있다. 한글학회의 <우리말 큰사전>의 경우 중세국어는 수관형사를 수사에 포함시키고 있고 현대국어는 수사와 수관형사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명확하지 않으나 중세국어의 경우 허웅(1975)의 논의를 받아들이고, 현대국어의 경우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결과로 생각된다.

5) 영어의 경우도 수사를 독립된 품사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진 않으나 있다. 수사를 독립된 품사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논자에 따라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등의 하나 또는 둘 이상에 포함시킨다. 영어의 수사를 명사 혹은 대명사로 구분하는 경우 부정 관사를 수반하거나 복수형 ‘-s’를 취하는 경우는 명사 그렇지 않은 것은 대명사로 보기도 한다(조성식 1990:817-818). 이는 국어에서 격조

정하고 각각의 범위에 대해서 논의한다.

수량을 나타내는 어휘들 중에서 격조사와 결합할 수 있는 형태인 ‘하나, 둘, 셋, 넷...’ 등과 비교하여 격조사와는 결합할 수 없고 이들과 형태상 구별되면서 체언 앞에 선행하여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만 하는 ‘한, 두, 세/서/석, 네/너/넉’ 등이 수관형사에 포함된다는 점에 대해서 연구자들은 대체로 동의했다. 하지만 ‘다섯, 여섯, 일곱...’ 등은 격조사와 결합할 수 있으면서도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혹은 수관형사 중 어느 한 쪽에 포함시키기가 어려워 이들의 처리는 연구자들에 따라 차이를 보여 왔다. 이런 어휘들에 대해서는 수사로만 보는 견해와 수사와 수관형사에 동시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었다.

현행 학교 문법의 경우 ‘다섯, 여섯, 일곱...’을 수사 및 수관형사에 모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이른바 ‘품사의 통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개, 그루, 되, 마리’ 등과 같은 단위성 의존 명사 혹은 분류사 앞에는 ‘하나, 둘, 셋’과 같은 수사는 오지 못하고 ‘한, 두, 세/석/서’와 같은 수관형사만 올 수 있다. 단위성 의존 명사나 분류사 앞에는 명사나 수사와 같은 체언이 오지 못하고 수관형사만 올 수 있다고 한다면 이들 앞에 올 수 있는 모든 단어들은 수관형사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다섯, 여섯, 일곱...’ 등도 수관형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위성 의존 명사나 분류사와 같은 특정한 부류를 제외하면 체언이 후행하는 체언을 수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되므로 ‘다섯, 여섯, 일곱...’과 같은 어휘들을 특정 체언을 수식하는 특성에 근거해서 수관형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체언 앞에서 체언을 수식하면서 동시에 격조사를 취할 수 있는 이런 부류를 관형사에 소속시킨다면 국어의 많은 명사나 대명사가 관형사로도 분류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수관형사를 ‘수량을 나타내는 어휘들 중에서 체언을 수식하되 격조사와 결합할 수 없는 어휘들’로 한정하여 수사와 구별하기로 한다.<sup>6)</sup>

사를 취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수사와 수관형사로 구별하는 것과 유사하다.

- 6) 학교 문법에서 ‘다섯, 여섯...’ 등을 품사의 통용으로 처리하여 이들이 문장에서 체언 앞에 쓰이면 수관형사, 조사가 결합되면 수사로 보고 있는 것은 국어의 품사 분류의 기준으로 ‘통사론적인 기능’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듯하다. 이런 관점은 품사 분류의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

### 3. 15세기 국어의 수사와 수관형사

#### 3.1. 수사와 수관형사

우리는 2장에서의 논의를 통해 수사와 수관형사를 구별해 보았다. 3장에서는 2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15세기 국어 자료에 나타나는 수사 혹은 수관형사에 속하는 어휘들의 특성을 검토해 볼 것이다.

고영근(1997: 91, 160)에서의 논의를 따르면 중세국어의 수사 및 수관형사는 다음과 같다.

- (1) ᄒ나ᄒ, 둘ᄒ, 세ᄒ, 네ᄒ, 다섯, 여섯, 닐곱, 여덟, 아홉, 열ᄒ, 스물ᄒ, 쉰ᄒ, 마흔, 쉰, 여흔, 닐흔, 여든, 아흔, 온, 즈믄
- (2) ᄒ, 두, 세/석/서, 네/넉/너,<sup>7)</sup> 다섯/닷, 여섯/엿, 닐곱, 여덟, 아홉, 열, 열ᄒ, 열둘/열두... 스물/스므, 쉰ᄒ...온, 즈믄

(1), (2)는 각각 기수사와 수관형사를 보인 것이다.<sup>8)</sup>

(2)에서 제시된 예들 중에서 2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량을 나타내는 어휘들 중에서 체언을 수식하되 격조사와 결합할 수 없는 어휘들’로 수관형사의 범위를 한정하면, ‘다섯, 여섯, 닐곱, 여덟, 아홉, 스물, 온, 즈믄’ 등은 수관형사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가 수관형사에서 제외

---

용한다는 점에서 가능한 분류라고 생각되지만 관형사가 폐쇄 부류이므로 수가 많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 통사론적인 기준으로만 본다면 많은 명사들도 관형사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런 입장을 따르지 않기로 한다.

- 7)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세/석/서’, ‘네/넉/너’가 짝을 이루고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되나 ‘너’는 문증되지 않고 ‘너모 번득ᄒᆞᆫ 연<번역박통사 상:17>’에 “너”의 화석형이 나온다. ‘너모’의 용례를 지적해 주신 익명의 논평자에게 감사드린다.
- 8) 이른바 ‘ᄒ’ 중성 체언을 ‘ᄒᄒ’식으로 적지 않고 ‘ᄒ나ᄒ’식으로 적은 것은 ‘ᄒ’이 단독형이나 ‘ㄴ’과 같은 자음 앞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1)에서는 수사 중에서 기수사만 제시하고 있는데, 서수사는 다음 절에서 따로 언급한다. 또한 ‘몇, 여러ᄒ’와 같은 부정수(不定數)를 나타내는 것들도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한 ‘다숫, 여숫, 열둘, 스물’과 관련이 있는 형태로<sup>9)</sup> 생각되는 ‘닷, 엇, 열두, 스므’를 수관형사로 볼 것인지는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관형사란 다른 품사에서 형태적, 통사적, 의미적인 제약을 가지게 되어 공시적으로 ‘체언을 수식하지만 격조사와 결합할 수 없는 어휘 부류’라는 본고의 정의를 받아들인다면 ‘닷, 엇, 열두, 스므’를 수관형사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사와 구별하여 수관형사를 ‘수량을 나타내는 어휘들 중에서 체언을 수식하되 격조사와 결합할 수 없는 어휘들’로 한정하게 되면 중세국어의 수관형사는 ‘흔, 두, 세/석/서, 네/넉/너, 닷, 엇, 열두, 스므’ 정도로 한정된다.<sup>10)</sup> 관형사가 다른 품사에서 형태적, 통사적, 의미적인 제약을 입어 형성된 것이고 폐쇄 부류로서 그 수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예가 이 정도로 한정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특히 기본수에 가까운 ‘흔, 두, 세/석/서, 네/넉’ 등이 수사와는 구별되는 수관형사의 형태를 갖는다.<sup>11)</sup>

수관형사와 관련하여 논의되어야 할 문제의 하나는 ‘세/석/서’와 ‘네/넉’의 쓰임에 관한 것이다. 현대국어의 경우 ‘세/석/서’와 ‘네/넉/너’는 후행하는 명사의 종류에 따라 선택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말[斗]’ 앞에서는 ‘서, 너’가 선택되고 ‘장’ 앞에서는 ‘석, 넉’이 실현된다(남기삼·고영근 1993: 174). 나머지 명사가 후행할 경우 대체로 ‘세, 네’가 선택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각각의 형태들은 형태론적으로 조건된 이형태로

9) ‘닷, 엇’과 ‘다숫, 여숫’의 관계는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지만 기원적으로는 ‘닷, 엇’에 접미사가 결합한 형식이 ‘다숫, 여숫’인 듯하다. ‘열두, 스므’의 경우 ‘열둘, 스물’에서 탈락된 형태로 생각된다.

10) ‘세, 네’의 경우 본고의 기준으로 수사인지 수관형사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예들이다. 중세국어에서 ‘三, 四’를 나타내는 수사는 ‘세ㅎ, 네ㅎ’로서 환경에 따라 ‘세ㅎ, 네ㅎ’으로도 나타나고 ‘세, 네’로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언 앞에서 체언을 수식하는 ‘세, 네’의 경우는 ‘세ㅎ, 네ㅎ’이 환경에 따라 ‘세, 네’로 나타난 것인지 수관형사로서 수사와 구별되는 형태를 가지는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다.

11) 기본수가 아닌 경우 수사가 관형어적인 용법으로도 쓰이어 수관형사가 따로 발달하지 않는다. 자주 쓰이는 기본적인 형태가 특별한 형태로 발달하는 경향은 보충법 등에서도 발견되는 현상이다. 즉, 다음에 논의하게 될 서수사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첫째’의 경우가 보충법으로 나타난다.

볼 수 있을 듯하다. 하지만 특정 명사가 항상 한 가지 형태를 갖는 것은 아닌 듯하고 각각의 형태의 선택은 방언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어 이들 형태들의 선택 조건을 형태론적으로도 명확하게는 말하기 어렵다.

중세국어의 경우도 ‘세/석/서’와 ‘네/넉’의 쓰임은 어느 정도는 후행하는 명사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3) 가. 各各 선 되 드랸 華瓶을 노코<두시언해 25:42>

나. 울미 팔 선 흠과<구급간이방 1:1>

(4) 가. 懼師羅 長子ㅣ 크 석 자히러니<석보상절 6:44>

나. 넷 사르미 흐마 겨숯 석 득래 足호물 뿌니<두시언해 7:31>

다. 석 삼<훈몽자회 하:14>

(3), (4)에서 볼 수 있듯이 ‘서’는 주로 ‘되’, ‘흠’과 같은 곡식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 명사와 잘 결합하는 듯하고 ‘석’은 ‘자, 들’ 등과 같은 명사들과 자주 결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4다)와 같이 자석(字釋)에 ‘석’이 쓰이는 것도 특이하다. ‘넉’의 경우도 ‘석’의 경우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이에 비해 ‘세, 네’는 특별한 제약 없이 일반적인 명사와 결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석’이나 ‘넉’이 특정 명사와 쉽게 결합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특정 명사가 항상 ‘세/석/서’나 ‘네/넉’ 중의 하나와만 결합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들의 선택 제약을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 3.2. 기수사와 서수사

15세기 국어에서 서수사는 대체로 기수사에 ‘-차히, -자히, -채, -재, -차, -자’ 등의 접미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sup>12)</sup> (1)에서

12) 익명의 논평자는 ‘-차히, -자히, -채, -재, -차, -자’ 등이 그 앞에 사이시옷이 올 수 있다는 점, ‘열흐나차히, 열둘차히’가 ‘열한째, 열두째’로 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중세국어에서는 (의존) 명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지적을 해 주었다. 중세국어에서 이들 형태들을 접미사로 볼 것인지 (의존) 명사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본고에서는 사이시옷은 접미사에 선행할 수도 있다는 점, ‘열한째, 열두째’에 대해서는 ‘열한 번째, 열두 번째’에





재, -자'의 관계는 'ㅎ나ㅎ, 둘ㅎ, 세ㅎ, 네ㅎ, 열ㅎ' 등과 같이 'ㅎ' 종성을 가지는 체인들의 존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차히, -채, -차' 등은 '-자히, -재, -자' 등이 선행하는 기수사의 'ㅎ'과 결합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는 것은 원래 이들 접미사들이 의존 명사적으로 쓰이던 -자히'에서 접미사로 발달한 것이라는 점과 'ㅎ' 종성이 사라지는 후대형에서 '-재'나 '-째'로 발달하는 것으로 보아 짐작할 수 있다. '-차히, -채, -차'는 원래 'ㅎ' 종성을 가지는 수사에서만 나타나다가 유추적 평준화를 입어 '다숫, 여숫'과 같은 'ㅎ' 종성을 가지지 않는 수사 뒤에서도 나타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차히, -자히'에서 모음 사이의 'ㅎ'이 약화되어 '-채, -재'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차히, -자히, -채, -재'와 달리 '-차, -자'가 결합한 형식은 항상 속격의 '-ㅅ'과 결합하여 명사를 꾸미는 관형어적인 용법으로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차히, -자히'나 그 축약형 '-채, -재'는 '-차, -자'에 '이'가 결합하여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sup>14)</sup>

지금까지 우리는 서수사가 기수사에 접미사가 결합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기술해 왔다. 그러나 비록 15세기 형태는 아니지만 (6가)의 '첫째'나 현대국어의 '열한째, 열두째'를 고려하면 서수사가 기수사뿐 아니라 수관형사에 접미사가 결합하여 형성되기도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국어조어법 전반을 살펴보아도 관형사가 접미사의 어기로 쓰이는 예가 거의 없으므로 이런 예는 아주 특이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sup>15)</sup> 또한 (6나)에서

14) '-이'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다. '체인+주격조사'가 결합한 통사 구성이 통시적으로 단일어로 인식되는 현상이 많은 어휘에서 나타난다(구본관 1997)는 점을 고려하면 이 '-이'가 주격조사에서 왔을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한편, '-차, -자'는 항상 관형격 조사 'ㅅ'과 결합하여 나타나 체인을 수식하는 용법으로만 쓰이므로 안병화·허경(1992:93)에서처럼 아예 '-찻, -жат'을 접미사로 잡기도 한다. 이는 '차히, -자히, -채, -재' 등이 '-차, -자' 등에서 온 것이라 볼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로 삼을 수도 있다. 하지만 '-차, -자'뿐 아니라 '-채'가 'ㅅ'과 결합하여 명사 내지 명사구를 수식하는 '둘채 가솔비샤물 브터<원각경언해 상 1-2:179-180>'와 같은 용법도 나타나므로, '-차, -자'가 'ㅅ'과 결합하여 명사를 수식하는 용법으로만 쓰인다는 사실이 '-차히, -자히, -채, -재' 등이 '-차, -자'에서 온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15) 주지하듯이 국어의 파생어 형성에서 관형사가 접미사의 어기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구조주의적인 조어법 논의에서 '관형사+접미사'의 구성으로 논의된

볼 수 있듯이 ‘둘째’뿐 아니라 ‘똥재’로도 나타나고 (6다)에서 볼 수 있듯이 ‘썰재, 셋재’처럼 사이소리가 개재되고 후대형에서 ‘-째’로 고정되는 것은 서수사가 단순히 기수사에서 접미사가 결합하여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서수사가 기수사뿐 아니라 수관형사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예가 존재하고, 기수사와 접미사 사이에 사이시옷이 개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서수사를 형성하는 접미사 ‘-자히’가 원래 (의존) 명사에서 발달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7) 가. 두서 히 자히<월인석보 1:6>

나. 그 뽕 世尊이 龍王堀에 안존 자히<월인석보 7:25>

(7가)의 ‘자히’를 의존 명사로 볼 수 있다면 서수사를 형성하는 접미사 ‘-자히’는 원래 구에 결합하는 의존 명사의 용법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7나)에서 쓰인 ‘자히’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기원적으로는 (7가)의 의존 명사 ‘-자히’나 서수사를 만드는 ‘-자히’와 관련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sup>16)</sup> (7가)와 (7나)는 현대국어에서는 접미사 ‘-째’와 의존 명사 ‘째’로 발달한다. ‘-자히’가 기원적으로 (의존) 명사에서 발달했기 때문에 기수사가 아니라 수관형사를 선행시킬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선행하는 기수사와 ‘-자히’ 사이에는 사이시옷이 개재되는 것도 자연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 3.3. 수사와 수관형사의 합성

우리는 지금까지 수사를 기반으로 수관형사가 형성되는 과정과 기수사나 수관형사에 접미사가 결합하여 서수사가 형성되는 과정을 검토해 보았다. 이제 우리는 이들 수사나 수관형사들이 결합되어 합성어를 형성하

---

‘새롭-’과 같은 예는 형성 당시의 결합 관계는 ‘명사+ 접미사’에서 온 것으로 생각된다. ‘열한째, 열두째’의 경우는 ‘관형사+ 째’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열한 번째, 열두 번째’의 통사 구성에서 ‘번’이 생략되어 나타난 것일 가능성도 있다.

16) (7가)와 (7나)의 ‘자히’는 성조가 같다. 그러나 의미 차이가 있으므로 기원적으로 같은 형태에서 온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는 과정을 살펴 보기로 한다.<sup>17)</sup>

먼저 기수사 합성어를 살펴보도록 하자.

(8) 가. 네 이우제 므스 거시 잇느니오 흔돌 늘근 호올겨지비로다<두시언해 重 4:11>

가'. 玉體 創瘢이 흔두 곧 아니시니<용비어천가 10:46>

나. 거유 느랏짓 두서흔 스라 細末하야<구급방언해 상:53>

나'. 머리 누른 奚兒ㅣ 날마다 西를 向하야 두어곤 몰 타 활 혀 구떡여  
돌이느다<두시언해 重 4:4>

다. 형대 서너히 기동 덕키여 안갓논<번역박통사 상:42>

라. 네 내 나히 열 너덧세 글 짓는 짜해 나 노로니<두시언해 重 2:38>

우리는 2장의 논의를 통하여 격조사가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수사, 그렇지 못한 것은 수관형사로 구별한 바 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현대국어의 경우 ‘흔돌’은 수사, ‘한두’는 수관형사가 된다. 중세국어에 나타나는 (8가)의 ‘흔돌’과 (8가')의 ‘흔두’에 대해서도 각각을 수사와 수관형사로 구별할 수도 있을 듯하다. 그러나 현대국어의 경우는 격조사의 결합 여부를 우리의 직관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중세국어는 자료에 의해 확인할 수밖에 없다. 격조사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수사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격조사를 가지는 예가 문증되지 않아 수사인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즉 수사는 관형어적인 용법으로도 쓰일 수 있으므로 관형어적인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가 격조사와 결합하는 경우보다 훨씬 흔하게 발견되는데, 격조사와 결합하는 예가 전혀 문증되지 않으면 오히려 수사를 수관형사로 판단할 수도 있다. (8가)의 ‘흔돌’(혹은 흔돌ㅎ) 역시 수사일 가능성이 높으나 격조사를 취하는 예가 문증되지 않는다. (8가')의 ‘한두’는 현대국어의 용법과 중세국어의 ‘두’가 수관형사로만 쓰인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관형사로 볼 수 있을 듯하다.

(8나)의 ‘두서ㅎ’은 격조사와 결합하는 예가 문증되므로 수사로 보는 데는 무리가 없다. ‘두서ㅎ’과 대조적으로 ‘두서, 두어, 두워, 두서, 두세’ 등

17) 합성 수사에는 ‘열하나, 열둘’과 같은 어휘들도 포함된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합성 수사를 논의할 때에는 주로 ‘한돌, 두셋’ 등과 같은 부정수(不定數)를 주로 언급할 것이다.

은 격어미와 결합하는 예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수관형사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이들 형태는 ‘ㅎ’을 가진 형태를 기본형으로 보고 단독형으로 쓰이기 때문에 ‘ㅎ’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모두 수사로 볼 수 있지만 ‘두서ㅎ’을 제외하고는 수관형사로 보기로 한다. 다만 (8나)의 예는 ‘두어’가 격조사와 결합한 예는 아니지만 관형사적으로만 쓰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8다)의 ‘서너ㅎ’ 역시 격조사와 결합형이 나타나므로 수사로 보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 ‘너덜’이 격조사와 결합한 예는 잘 발견되지 않으나 (8라)에서처럼 ‘열 너덜’이 격조사와 결합하는 것에 유추해 보면 ‘너덜’이 격조사와 결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수사로 보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

문제는 (9가, 가')와 같이 관형어적인 용법만 문증되는 경우를 관형사로 보느냐 수사로 보느냐 하는 것이다.

(9) 가. 胡騎는 기리 돌여 굴외오미 다엿 히로다<두서언해 重 2:1>

가'. 서 되를 取하야 머구무디 나지 대엿 번 바미 세 번 히라<구급방언 해 상:66>

나. 흐르 네다엿 번 머거<구간 6:44>

다. 집 뒤 디함에 설마은 피 뽏든는 尸首와 그 진쥬 布絹을 다 뒤여 내 고<박통사언해 重 29>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수사는 관형어적인 용법으로도 쓰인다. ‘다엿/대엿’의 경우 관형어적인 용법만 문증되지만 현대국어의 ‘대엿’을 고려하면 수사로 쓰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합성수사는 빈도수가 높은 단어가 아니며 따라서 이들이 격조사와 함께 쓰이는 예가 문증되지 않을 뿐 격조사와 결합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2장에서의 논의를 통해 수관형사의 범위를 수사와 구별되는 형태적 특성을 가지는 부류로 제한한 바 있다. 이처럼 관형어적인 용법만 확인이 되지만 합성 수사로 볼 수 있는 예에는 ‘다엿/대엿’ 이외에도 ‘여닐곱, 닐여덟, 열아홉/여다홉’ 등이 발견된다. 합성 수사로써는 비록 15세기 국어의 예는 아니나 (9나)의 ‘네다엿’처럼 3개의 수사가 결합한 예도 나타나며, (9다)처럼 바로 앞 뒤의 숫자가 결합한 것이 아닌 경우도 나타난다.<sup>18)</sup>

현대국어의 경우 ‘한두째, 두어째/두세째, 두서너째, 서너째, 땃째’와 같

은 서수사의 합성형도 꽤 나타난다. 그러나 중세국어의 경우 서수사의 합성형은 잘 발견되지 않는다. 문헌의 한계일 수도 있지만 합성형이 다시 파생의 어기가 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일반적인 경향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sup>19)</sup>

예가 많지는 않지만 합성 수관형사도 나타난다.

(10) 가. 玉體 創癰이 흔두 곧 아니시니<용비어천가 10:46>

나. 種種 方便으로 두서 변 니르시니<석보상절 6:6>

나'. 헛다가 물러가디 아니커든 문득 짜해 나려 두서열 거르물 거러<몽산범어 3>

다. 百姓이 저재 가듯 모다 가 서너 헛 스시에 큰 나라히 득외어늘<월인석보 2:7>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10가)의 ‘흔두’는 수사로 볼 수 있는 ‘흔돌’과는 달리 수관형사로 볼 수 있을 듯하다. (10나)의 ‘두서’ 역시 수사로 쓰이는 ‘두서ㅎ’과 비교해 보면 수관형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두서’는 ‘두어, 두워, 두서, 두세’ 등으로도 나타난다. (10나')의 ‘두서열’은 관형사적인 용법의 ‘두서’가 수사인 ‘열’과 결합한 합성 수사로 볼 수 있는데, ‘두서百, 두서千’ 등도 나타난다. 이들을 합성어로 볼 수 있을지 ‘두서 열, 두서 百, 두서 千’의 통사 구성으로 볼 수 있을지는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다. 또 (10다)의 ‘서너’는 수사로 볼 수 있는 ‘서너ㅎ’과 비교해 보면 수관형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너덧, 다엿/대엿, 여닐굽, 닐여둡, 연아홉/여다홉’ 등은 관형어적인 용법만 문증되지만 이들은 체언을 가질 수 있는 부류로서 관형사로 볼 수 있는 형태상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관형사가 아니라 수사로 분류한다.

18) 허웅(1975: 104)에서는 ‘여원’을 ‘열+원’의 합성 수사로 보고 있으나, 형태가 ‘여원’이 아니라 ‘여원’이고 ‘열’과 ‘원’의 결합과 같은 결합 방식이 다른 수사 합성에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된다.

19) 일반적으로 파생어나 합성어가 파생 규칙의 어기로 잘 쓰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런 경향은 절대적인 제약은 아니며 파생어나 합성어가 단일어화하여 화자에게 단일어로 인식되면 이런 경향이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대국어의 서수사 합성어가 가능한 것은 ‘-째’에 선행하는 합성 수사(혹은 관형사)가 이미 단일어로 인식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듯하다.

## 4. 수사와 수관형사의 통시적 변화

### 4.1. 기수사의 통시적 변화

고유어 기수사의 경우 15세기에서 현대국어에 이르는 동안 특별한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다. 먼저 15세기 국어와 현대국어의 단일어 기수사를 비교해 보기로 하자.

- (11) 가. ㅎ나ㅎ, 둘ㅎ, 세ㅎ, 네ㅎ,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ㅎ, 스물ㅎ, 열흔, 마흔, 쉰, 여췌, 일흔, 여든, 아흔, 온, 즈믄  
 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스물, 서른, 마흔, 쉰, 예순, 일흔, 여든, 아흔, 백(百), 천(千)

15세기 국어와 현대국어의 기수사를 비교하면 (11가)과 (11나)의 비교에서 볼 수 있듯이 ‘ㅎ’ 종성이 사라지고, ‘·’가 ‘ㅏ’나 ‘ㅑ’로 변하며 ‘ㅅ’이 소실되고, 모음간에 ‘ㅎ’이 약화되는 등의 다른 어휘에서도 발견되는 일반적인 변화가 목격된다.

특이한 변화는 ‘세ㅎ, 네ㅎ’이 ‘셋, 넷’으로 변한 것이다. 이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서수사에서 발견되는 현상인데, 서수사의 경우 외존명사에서 기원하는 접미사가 결합하므로 일종의 사이시옷이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기수사의 경우 이런 이유로 설명하기 어렵다. 서수사에 쓰인 ‘ㅅ’ 결합형이 일종의 재분석 과정을 거쳐 기수사로 쓰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세ㅎ, 네ㅎ’에서 ‘셋, 넷’으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시기의 자료가 잘 발견되지 않아 확실하지 않다. ‘셋, 넷’이 기수사로 쓰이게 된 것에는 ‘다섯, 여섯’처럼 원래 ‘ㅅ’을 받침으로 가지고 있던 수사들에 의한 일종의 유추적 평준화도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15세기 국어와 20세기 국어에서 나타나는 단일어 기수사의 변화에서 주목되는 다른 한 가지는 ‘온, 즈믄’이 ‘백(百), 천(千)’과 같은 한자어계 수사로 대체되어 왔다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중세국어 이전부터 국어에는 한자어가 많이 차용되어 고유어계 어휘를 대체해 왔다. 이런 경향은 수사에도 마찬가지로 ‘온, 즈믄’ 등이 한자어계 어휘로 대체되었다. 고유어계 수사의 한자어계로의 대체는 ‘온, 즈믄’의 ‘백(百), 천(千)’으로의 대체

를 제외하고도 방언에 따라 더 광범위하게 일어나기도 했다.<sup>20)</sup>

이제 15세기 국어와 현대국어의 합성어 기수사를 비교해 보기로 하자.

(12) 가. 혼둘, 두서ㅎ, 서너ㅎ, 너댓, 다엿/대엿, 여닐곱, 닐여둡, 열아홉/여다  
홉// 네다엿

나. 한둘, 두셋, 서넛, 너댓, 댓/대여섯, 예닐곱, 일여덟, 열아홉//두서넛,  
너댓/너더댓

합성어 기수사도 단일어 기수사와 마찬가지로 15세기 국어와 현대국어에서 큰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ㅎ’ 종성이 사라지고, ‘ㄱ’이 ‘ㄷ’나 ‘ㄴ’로 변하며 ‘ㅅ’이 소실되고 등의 일반적인 변화가 합성어 기수사에서도 발견된다. 또한 ‘세ㅎ, 네ㅎ’이 ‘셋, 넷’으로 변화한 것처럼 ‘두서ㅎ, 서너ㅎ’이 ‘두셋, 서넛’으로 변화하였다.

둘 이상의 수사가 합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네다엿’은 “넷 혹은 다섯이나 여섯”의 의미로 쓰이기보다 15세기 국어에서도 “넷 혹은 다섯” 정도의 의미로 쓰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대국어의 ‘너댓/너더댓’도 “넷 혹은 다섯”의 의미로 쓰인다. 현대국어에서는 중세국어에 발견되지 않는 ‘두서넛’이 쓰이는데 “둘 또는 서넛”의 의미로 쓰여 합성된 세 개의 수사의 의미가 모두 나타난다. 이미 언급한 특이한 합성 수사인 ‘설마은’은 현대국어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 4.2. 서수사의 통시적 변화

서수사의 경우 15세기 국어와 현대국어 사이에는 제법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이미 3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5세기 국어에서는 서수사가 기수사나 수관형사에 ‘-차히, -자히, -채, -재, -차, -자’ 등의 접미사와 결합하여 형성되었다. 현대국어에서는 서수사를 만드는 접미사는 ‘-째’로 단

20) 이런 경향은 방언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어떤 방언에서는 ‘마흔, 쉰, 예순, 일흔, 여든, 아흔’ 등이 ‘사십, 오십, 육십, 칠십, 팔십, 구십’ 등으로 대체되거나 양자가 다 쓰이더라도 한자어계가 주로 쓰이고 고유어계는 거의 안 쓰이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일화되어 나타난다.

(13) 가. <sup>ㅎ</sup>나차히, 둘차히, 세차히, 네차히, 다섯차히, 여섯차히, 널굽차히, …  
열차히, 열<sup>ㅎ</sup>나차히, 열둘차히, …스믈차히, 스믈<sup>ㅎ</sup>나차히…설흔차히,  
… 여든차히

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 열째, 열한째,  
열두째, 스물째, 스물한째, 서른째, … 여든째

15세기 국어와 현대국어의 서수사를 비교해 보면 ‘·’의 변화나 ‘ㅎ’의 약화와 같은 일반적인 음운 변화를 제외하면 접미사가 ‘-째’로 단일화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로 보인다. 서수사를 만드는 접미사가 ‘-차히, -자히, -채, -재, -차, -자’에서 ‘-째’로 변화는 이미 3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행 어기와 접사 사이에 사이시옷이 개재되어 이루어졌다. 서수사의 형성은 15세기 국어에서는 주로 ‘-차히’가 결합하여 이루어졌고, 16세기 이후에는 (6)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재’가 결합하거나 사이시옷과 ‘-재’가 결합하다가 현대국어에 이르면서 ‘-째’로 단일화되었다.

15세기 국어의 ‘<sup>ㅎ</sup>나차히’가 근대국어와 현대국어에 이르면서 보충법 형태 ‘첫째<한청문감 4:27>, 첫째’로 교체된 것도 큰 변화의 하나이다. ‘첫재’나 ‘첫째’는 중세국어 이래로 관형사로만 쓰이는 ‘첫’이 ‘-재, -째’의 어기로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특이하다. 이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서수사를 만드는 접미사 ‘-재, -째’ 등이 기원적으로 (의존) 명사에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15세기 국어의 ‘열<sup>ㅎ</sup>나차히, 열둘차히’ 등이 현대국어에서 ‘열한째, 열두째’ 등으로 변화한 것은 선행 어기가 기수사에서 수관형사로의 대체를 보여주는 예인데, 이 역시 서수사를 만드는 접미사가 의존명사에서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sup>21)</sup>

3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국어의 경우 ‘한두째, 두어째/두세째, 두서너째, 서너째, 몇째’와 같은 서수사의 합성형도 꽤 나타나지만 15세기

21) ‘열한째, 열두째’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열한 번째, 열두 번째’에서 ‘번’이 생략되어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 또 ‘열두째’의 경우 수관형사가 결합한 것이 아니라 ‘열둘째’에서 ‘ㄹ’이 후행하는 자음의 영향으로 탈락했을 가능성도 있다. ‘열두째’와는 달리 ‘둘째’는 ‘-째’의 어기가 수사인 ‘둘’로 나타난다. 방언에 따라서는 ‘두째’로 나타나기도 한다.



국어의 경우 서수사의 합성형은 잘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우리는 문헌의 한계이거나 합성형이 다시 파생의 어기가 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일반적인 경향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바 있다.

### 4.3. 수관형사의 통시적 변화

수관형사는 15세기 국어와 현대국어 사이에 차이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 (14) 가. 혼, 두, 세/석/서, 네/넉, 닷, 엇, 열흔, 열두, 스므  
나. 한, 두, 세/셋/서, 네/넉/너, 닷, 엇, 열한, 열두, 스무

‘. ’의 변화나 순음 아래서의 ‘->ㅌ’의 변화와 같은 일반적인 음운 변화가 발견될 뿐 15세기 국어의 수관형사는 거의 그대로 현대국어의 수관형사로 이어진다. 다만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세/석/서’나 ‘네/넉/너’와 같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것들이 뒤에 이어지는 명사를 선택하는 제약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합성 수관형사의 경우도 15세기 국어와 현대국어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 (15) 가. 혼두, 두서/두서/두어/두워/두세, 서너  
나. 한두, 두어/두세, 서너, 두서너

15세기 국어의 합성 수관형사는 ‘. ’의 변화나 ‘ㅌ’의 변화와 같은 일반적인 음운 변화에 의해 현대국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현대국어에서는 15세기 국어에서는 발견되지 않던 세 개 이상의 어기가 결합한 ‘두서너’가 쓰이는데, 문헌 자료의 한계인지 중세국어 이후 새로 나타나게 된 것인지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다.

## 5. 결론

수사와 수관형사는 다른 어휘 부류와 차이 나는 형태적, 통사적, 의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많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품사 분류와 조어법상의 특성 등 형태론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수사와 수관형사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특히 수사와 수관형사의 통시적인 변화를 검토하여 현대국어의 수사와 수관형사의 형성 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수사와 수관형사를 구별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본고에서는 수관형사의 범위를 ‘수량을 나타내는 어휘들 중에서 체언을 수식하되 격조사와 결합할 수 없는 어휘들’로 한정하여 격조사와 결합할 수 있는 수사와 구별했다.

3장에서는 15세기 국어의 수사 및 수관형사를 논의했다. 우선 2장에서의 정의에 따라 15세기 국어에서 문증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수사와 수관형사를 확정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나서 수사의 한 종류인 서수사의 형성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15세기 국어에서 서수사를 만드는 접미사는 ‘-차히, -자히, -채, -재, -자’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이들은 기원적으로 (의존) 명사인 ‘-자히’에서 온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서수사를 형성하는 접미사는 여기로 기수사뿐 아니라 수관형사를 가지기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예들도 있는데, 이는 서수사를 만드는 접미사가 (의존) 명사인 ‘-자히’에서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다. 또한 부정수(不定數)를 나타내는 합성 수사나 합성 수관형사를 확정하고 그 특징을 논의했다. 중세국어 혹은 근대국어에서는 현대국어에는 나타나지 않는 ‘설마은’과 같은 특이한 합성어도 존재했음을 알 수 있었다. 중세국어에서는 현대국어와 달리 부정수(不定數)를 나타내는 서수사 합성어가 문증되지 않았는데, 이는 자료의 한계일 수도 있지만 합성형이 다시 파생의 어기가 잘 되지 않는 경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15세기 국어의 수관형사 합성어도 현대국어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두서열’과 같은 특이한 결합이 발견되었다.

4장에서는 3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수사와 수관형사가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 변화하는 과정을 통시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보았다. 먼저 기수사의 통시적인 변화에서 주목되는 것은 ‘세충, 네충’이 ‘셋, 넷’으로 변하는

것이였다. 이는 종성 ‘ㅎ’이 소멸되는 변화와 서수사로 쓰이는 사이시옷 결합형이 일종의 재분석 과정을 거쳐 기수사로 쓰인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에는 ‘다섯, 여섯’과 같이 원래 ‘ㅅ’ 받침을 가진 기수사들에 의한 유추적 평준화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밖에 고유어계 수사의 한자어계로의 대치도 목격되였다. 고유어계 수사의 한자어계 수사로의 대치는 방언에 따라 정도에 있어 차이를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서수사의 통시적인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현대국어에서는 서수사 형성 접미사가 ‘-째’로 단일화되어 나타난다는 점이었다. 논의의 결과 15세기 국어에서 ‘-차히, -자히, -채, -재, -자’로 다양하게 나타나던 서수사 형성 접미사가 16세기 이후 ‘-재’를 거쳐 사잇소리와 결합된 ‘-째’로 단일화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ㅎ나차히’가 관형사 ‘첫’과 접미사 ‘-재(째)’의 결합으로 분석되는 ‘첫째’로 대치되는 것도 특징적이었는데, 이는 서수사 형성 접미사가 (의존) 명사에서 기원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되었다. 중세국어에서 잘 나타나지 않던 부정수(不定數)를 나타내는 합성 서수사가 현대국어에서 쉽게 나타나는 현상은 통시적인 변화로 화자에게 합성형 어기가 단일어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점과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본고가 수사 및 수관형사와 관련하여 논의한 문제는 주로 품사 분류와 관련된 문제와 조어론적인 과정에 관한 것이였다. 본고에서는 품사 분류와 관련하여 수사와 수관형사가 갖는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 데에 그쳤지만 논의 과정에서 품사 분류 전반과 관련되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검토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수사와 수관형사의 통사적 특성이나 의미적 특성에 대해서도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고는 15세기 국어에서 현대국어에 이르는 수사 및 수관형사의 통시적인 고찰에 머물렀지만 15세기 이전 국어의 수사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깊이 있는 천착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 둔다.

## 참 고 논 제

고영근(1997), 개정판 표준중세국어문법론, 집문당.

구본관(1997), 의미와 통사 범주를 바꾸지 않는 접미사에 대하여, 국어학

29:113-140.

구본관(1998), 15세기 국어 과생법에 대한 연구, 태학사.

김규식(1908), 대한문법, 김민수·하동호·고영근 공편(1986), 한국역대문법대  
계, 탑출판사.

김두봉(1916), 조선말본, 김민수·하동호·고영근 공편(1986), 한국역대문법대  
계, 탑출판사.

남기심·고영근(1993), 개정판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안병화·허경(1992), 국어문법론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유길준(1908), 대한문전, 김민수·하동호·고영근 공편(1986), 한국역대문법대  
계, 탑출판사.

이익섭(1986), 국어학개설, 학연사.

조성식 외(1990), 영어학사전, 신아사

주시경(1910), 국어문법, 김민수·하동호·고영근 공편(1986), 한국역대문법대  
계, 탑출판사.

주시경(1914), 말의소리, 김민수·하동호·고영근 공편(1986), 한국역대문법대  
계, 탑출판사.

최현배(1937/1975), 우리말본(다섯번째 고침), 정음사.

한글학회(1992), 우리말큰사전, 어문각.

허웅(1975), 우리옛말본, 샘문화사.

허웅(1995),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 문화사.

山田孝雄(1908), 日本文法論, 寶文館.

山田孝雄(1926), 日本文法學概論, 寶文館.

구본관(具本寬)

136-70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화: 02-3277-3333

e-mail: ekfldnf@hanmail.net

(2000. 10. 31. 원고 받고, 2000. 12. 11. 실기로 함)